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명신*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하며,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367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어린이집교사들의 공감능력은 평균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인지적공감이 정서적공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어린이집 교사, 공감능력, 영유아와 상호작용

논문 투고일: 2020. 7. 14. 최종심사일: 2020. 8. 24. 게재확정일: 2020. 9. 13.

* 미예뜰어린이집 원장

Corresponding author: Kim, Myeongsin, Mi Yetteul Childcare center, Seodun-ro 217 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jin165800k@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영유아는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특징을 보여 또래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보인다(서종미, 2013). 따라서 영유아의 요구와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 순간 함께 느끼며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다(이상순, 2008).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며 인지적 공감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관점, 생각, 상황, 감정 등을 예측 또는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공유된 정서 또는 대리 정서로 이해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와 합치되는 정서적 대리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주한, 2013). 즉,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공감능력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깊이 이해하며, 수용하여 도와주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은영, 2015).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육자로서 중요한 성향이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교사는 영유아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을 통해 영유아의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반응하여 도울 수 있으며(Krznaric, 2014), 부적응 아동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로 치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하영례, 김은경, 2013). 또한 영유아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공감하는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수용과 이해의 느낌을 통해 공감능력의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Krznaric, 2014). 그러므로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은 영유아의 공감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교사의 높은 공감능력은 유아교사의 인성(최은아, 2016), 행복감(박진성, 2015), 직무만족도(황인호, 장성화, 2012), 협동적 조직문화(이미나, 김민정, 정미라, 2016)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낮은 공감능력은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고(권정숙, 유재경, 조혜영, 2016),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훈육행동(이은희, 김순호, 김현익, 우연희, 문수백, 2013)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아교사의 높은 공감능력은 유아의 인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숙, 2016).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들을 통해 공감능력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가 공감적 태도로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보다 촉진되며 나아가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이 작용하여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일로 상호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영유아간의 의사소통이며, 교사가 영유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이경미, 2012). 교사의 공감적인 상호작용은 안정적 애착을 갖게 하고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며,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선희, 황혜정, 2011). 또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영유아 반응에 따라 교사의 반응이 달라지고 교사 반응에 따라 다시 영유아 반응이 달라지는 상호교류적인 특징이 있다. 상호교류적 상호작용은 반응적이고 공감적인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한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교사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가치관(이지현, 2013), 교사의 전문성(이수련, 2013), 교사의 행복감(정다우리, 2013) 등의 변인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하고 소통하며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능력을 살펴볼 때 각각의 하위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과 영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공감능력과 같은 심리 정서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공감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을 살펴보고,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를 알아본 후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어린이집교사 40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 중 39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체크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367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총 367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367)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어린이집 유형	국, 공립 어린이집	81	22.1
	직장 어린이집	36	9.8
	민간 어린이집	167	45.5
	법인 어린이집	32	8.7
	가정 어린이집	51	13.9
연령	만 25세 이하	51	13.9
	만 26세 ~ 30세 이하	56	15.3
	만 31세 ~ 35세 이하	68	18.5
	만 36세 ~ 40세 이하	65	17.7
	만 41세 이상	127	34.6
근무 경력	1년 미만	27	7.4
	1년 ~ 3년 미만	69	18.8
	3년 ~ 5년 미만	76	20.7

최종학력	5년 ~ 7년 미만	43	11.7
	7년 ~ 10년 미만	84	22.9
	10년 이상	68	18.5
	고등학교 졸업	45	12.3
	2,3년제 대학 졸업	172	46.9
	4년제 대학 졸업	137	37.3
담당 영유아 연령	대학원 이상	13	3.5
	만 0세	41	11.2
	만 1세	82	22.3
	만 2세	113	30.8
	만 3세	52	14.2
	만 4세	48	13.1
	만 5세	31	8.4

2. 연구도구

1)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능력 설문지는 Davis(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7)가 번역한 것을 이상순(2008)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고 하위요인별 각각 2개의 하위요소가 있으며 문항 수는 각 7문항씩 총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rach's α 계수가 .83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하위요소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1, *2, 3, 4, *5, 6, 7,	7	.72
	상상하기	8, 9, *10, 11, 12, 13, 14	7	.85
	전체	1~14	14	.79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15, *16, 17, 18, *19, *20, 21	7	.68
	개인적 고통	22, 23, 24, *25, 26, *27, 28	7	.67
	전체	15~28	14	.69
	전체		28	.83

* 역채점 문항

2)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정척도(Bredekamp & Apple, 1986; Howes & Smith, 1995)를 기초로 이정숙(2003)이 수정 보완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의 자기 보고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 연구 도구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나뉘며 문항 수는 각각 10문항씩으로 총 30문항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7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적 상호작용	1, 6, 8, 10, 15, 17, 19, 24, 26, 28	10	.92
언어적 상호작용	2, 4, 9, 11, 13, 18, 20, 22, 27, 29	10	.90
행동적 상호작용	3, 5, 7, 12, 14, 16, 21, 23, 25, 30	10	.90
전체		30	.97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설문지를 2016년 9월 19일부터 배포하여, 2016년 10월 10일까지 어린이집교사 40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 중 390부를 회수하여 불분명하게 응답한 혹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아닌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총 36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versio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넷째, 문항 별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경향

1)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공감능력 전체의 평균은 3.54(SD=.40)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별로는 관점 취하기의 평균은 3.79(SD=.54), 상상하기의 평균은 3.36(SD=.76)로 어린이집교사들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역할을 취할 수 있는 타인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느낌을 상상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별로는 공감적 관심은 평균이 3.72(SD=.54), 개인적 고통은 평균이 3.27(SD=.54)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367)

변인	하위요인	M	SD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3.79	0.54
	상상하기	3.36	0.76
	전체	3.58	0.50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3.72	0.54
	개인적 고통	3.27	0.54
	전체	3.50	0.41
전체		3.54	0.40

2)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의 평균은 $M=4.18(SD=.50)$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상호작용은 $4.21(SD=.52)$, 언어적 상호작용은 $4.14(SD=.53)$, 행동적 상호작용은 $4.20(SD=.51)$ 으로 나타났다.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N=367)

변인	하위요인	M	SD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정서적 상호작용	4.21	0.52
	언어적 상호작용	4.14	0.53
	행동적 상호작용	4.20	0.51
전체		4.18	0.50

2.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1)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간의 상관관계는 $r=.22, p<.01$ 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소인 관점 취하기는 정서적 상호작용($r=.36, p<.01$), 언어적 상호작용($r=.29, p<.01$), 행동적 상호작용($r=.34, p<.01$),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r=.34,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상상하기는 정서적 상호작용($r=.17, p<.01$), 언어적 상호작용($r=.12, p<.05$), 행동적 상호작용($r=.17, p<.01$),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r=.16,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상호작용($r=.23, p<.01$), 언어적 상호작용($r=.18, p<.01$), 행동적 상호작용($r=.23, p<.01$),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r=.2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상호작용($r=-.12, p<.05$), 언어적 상호작용($r=-.12, p<.05$),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전체($r=-.11,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행동적 상호작용($r=-.07,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은 정서적 상호작용($r=.24, p<.01$), 언어적 상호작용($r=.18, p<.01$), 행동적 상호작용($r=.2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N=367)

상관변인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9
공감능력	1. 관점 취하기	1								
	2. 상상하기	.19**	1							
	3. 공감적 관심	.57**	.34**	1						
	4. 개인적 고통	-.04	.39**	.16**	1					
	5. 전체	.60**	.78**	.74**	.56**	1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정서적 상호작용	.36**	.17**	.23**	-.12*	.24**	1			
	7. 언어적 상호작용	.29**	.12*	.18**	-.12*	.18**	.91**	1		
	8. 행동적 상호작용	.34**	.17**	.23**	-.07	.24**	.90**	.88**	1	
	9. 전체	.34**	.16**	.22**	-.11*	.22**	.97**	.97**	.96**	1

* $p < .05$, ** $p < .01$

3.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각각 1.766, 1.743, 1.810, 1.772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값은 .1이상 (.61~.82)의 값으로 나타났고 VIF값은 10이하(1.22~1.65)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소(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N=367)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 ²	F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관점 취하기	.27	.06	4.89***	.148	15.67***
	상상하기	.11	.04	2.86**		
	공감적 관심	.02	.06	0.35		
	개인적 고통	-.15	.05	-3.04**		
정서적 상호작용	관점 취하기	.30	.06	5.31***	.167	18.20***
	상상하기	.12	.04	3.12**		
	공감적 관심	.02	.06	0.26		
	개인적 고통	-.17	.05	-3.34***		
언어적 상호작용	관점 취하기	.25	.06	4.23***	.114	11.69***
	상상하기	.10	.04	2.46**		
	공감적 관심	.01	.06	0.09		
	개인적 고통	-.16	.05	-3.04**		
행동적 상호작용	관점 취하기	.26	.06	4.59***	.137	14.33***
	상상하기	.10	.04	2.68**		
	공감적 관심	.04	.06	0.67		
	개인적 고통	-.12	.05	-2.37*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표 7>의 결과와 같이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14.8%로 설명($R^2 = .148$, $p < .001$)하고 있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관점 취하기($B = .27$, $p < .001$), 상상하기($B = .11$, $p < .01$), 개인적 고통($B = -.15$, $p < .01$)으로 나타났고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 취하기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16.7%로 설명($R^2 = .167$, $p < .001$)하고 있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관점 취

하기($B=.30, p<.001$), 상상하기($B=.12, p<.01$), 개인적 고통($B=-.17, p<.001$)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11.4%로 설명($R^2=.114, p<.001$)하고 있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관점 취하기($B=.25, p<.001$), 상상하기($B=.10, p<.01$), 개인적 고통($B=-.16, p<.01$)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 취하기로 나타났고 그 다음 개인적 고통, 마지막으로 상상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값이 증가할수록 언어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개인적 고통은 값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상호작용을 13.7%로 설명($R^2=.137, p<.001$)하고 있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관점 취하기($B=.26, p<.001$), 상상하기($B=.10, p<.01$), 개인적 고통($B=-.12, p<.05$)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하며,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된 자료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각 하위요인 모두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린이집교사가 타인의 요구와 감정, 생각과 행동을 잘 이해하고 예측할수록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타인과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예비교사의 인지적 공감이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우수경, 서윤희, 2016)와 초등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최지민, 2015)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많을수록 영유아와 상호작용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지민(2015)이 초등학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수준에서 공감적 관심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다.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높아지고, 개인적 고통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영유아 발달을 극대화하므로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행동적, 언어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연정(2016)의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개인적 고통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지적 공감인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가 높을수록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 어린이집교사는 미성숙한 존재인 영유아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잘 인식하여 대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더 촉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불안과 불편함에 대한 자기 지향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avis(1996)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공유는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므로 지나친 정서적 공감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공감적 관심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감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동정심과 따뜻함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으로 영유아 상호작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는 사랑과 신뢰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는 존재로서 영유아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동정의 마음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서적 측면의 공감적 관심만으로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지적 공감의 관점 취하기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관심이나 동정과 같은 정서적 경향성 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해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지적 경향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미라와 김민정, 이방실(2015), 이미나와 김민정, 정미라(2016)가 공감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관점 취하기를 강조한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도 어린이집교사의 관점 취하기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의 대상을 표집 함으로써 대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견들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교사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 사례연구, post voice 등과 같은 방법을 병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담당연령 구분 없이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아반교사와 유아반교사와의 구체적인 차이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영아반교사와 유아반교사에 따른 공감능력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구체적인 관계의 질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권정숙·유재경·조혜영(2016).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인식이 창의·인성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영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79-105.
- 김정숙(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1997). *공감과 친 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박주한(2013).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관람의 효과성: 공감능력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성(2015).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22(1), 97-118.
- 서종미(201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수경·서윤희(2016). 예비유아교사의 낙관성과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 연구*, 21(1), 367-384.
- 이경미(2016). 어린이집 저경력 교사가 경험하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김민정·정미라(2016). 협동적 조직문화가 유치원교사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 일 가치감의 매개효과 및 공감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5(2), 119-139.
- 이상순(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 교사의 공감능력 및 학생의 교사 신뢰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련(2013).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계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221-239.
- 이은영(2015). 공감의 교육학적 의미 연구 : 학교폭력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공감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1), 5-27.
- 이은희·김순호·김현익·우연희·문수백(2013). 보육교사의 부정적 훈육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 직무스트레스, 공감, 직장내 지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127-151.
- 이정숙(2003). 교사경력과 유아연령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13). 어린이집교사의 가치관 및 교수창의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우리(2013).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심사 및 교사 인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 영유아보육학*, 81, 49-70.
- 정미라·김민정·이방실(2015).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101-122.

- 최선희 · 황혜정(2011).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9(3), 1-18.
- 최연정(2016).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2016). 예비유아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공감, 교직윤리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 중심교과교육연구*, 16(1), 821-846.
- 최지민(2015). 초등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례 · 김은경(2013). 공감적 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이해와 행동의 변화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5), 267-289.
- 황인호 · 장성화(2012).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공감능력, 직무효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32-242.
- Breadekamp, S., & Apple, P.(1986). How early childhood program accredited : an analysis of accreditation. *Young Children*, 42(1), 34-38.
- Davis, M. H.(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owa : Brown & Benchmark Publication.
- Davis, M. H.(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 view Press.
- Hoffman, M. L.(2010).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Lewis, M., Haviland-Jones, J. M., Barrett, L. F (Eds.) *Handbook of Emotions* (3th ed, pp. 440-454).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Howes, C., & Smith, E.(1995). Relation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81-404.
- Krznicar, R., 김병화 역.(2014). *Empathy. 공감하는 능력*. 서울 : 산티.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Empathy on the Interaction with Infants

Kim, Myeongs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mpathy ability of the childcare teachers and the infant and the infant, and how the empathy ability of the childcare teachers affects the interaction with the infa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7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to investigate the general tendency of childcare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empathy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was above average, and cognitive empathy among the sub-factors was relatively higher than emotional empath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mpathy ability of the childcare teachers and the teacher-infant interaction.

Third, the effect of the childcare teachers on empathy abilit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data on how the empathy ability of the childcare teachers will affect the teacher-infant interaction, and also reveals factors that will increase the teacher-infant interaction of the childcare teachers.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acher education and related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empathy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in the future.

Key Words: childcare teachers, empathy ability, interaction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 Director of Mi Yetteul Childcare center